

내년부터 전과 전면 허용

2·3학년 대상 입학정원 20% 범위 계열 상관없이 가능...성적순 전형

현 학과에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들이 희망해오던 전과제도가 내년부터 쉬워지게 된다.

지난 21일 학과별 '97학년도 전과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 희망자 접수를 받을 것이라 밝혔다. 학과(전공)별 입학정원의 20%범위 내에서 전, 출업을 허용하는 전과시행안은 97학년도 2학년(1학년 과정 2학기 이수자)과 3학년(2학년 과정 2학기 이수자)에 한해 전과를 허용하게 된다. 계열에 관계없이 전과가 허용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학과에서 의·약학계열로의 전과와 야간학과에서 주간학과로의 전과, 캠퍼스 간 전과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는

허용하게 된다. 또한 편입학자, 재입학자, 특기자는 전과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형방법은 지원자의 전적학과 평점평균에 의한 성적순위에 의해 전형하며 사범계 학과로의 전과는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병행하여 전형, 예·체능계 전과는 실기고사를 거쳐 전형하게 된다.

한편, 97학년도부터 전공이수 학점을 36학점으로 내리는 '최소전공인정학점제도'를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시행하여 예정이어서 다른학과에 대해 전공심화를 하려는 학생들만 전과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5·31 교육개혁 조치 이후

전과를 저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해체됨에 따라 실시하는 전과 시행안에 대해 전영대(서울캠퍼스 학과)과 과장은 "이번 전과시행은 97학년도의 학부제 실시에 따른 교육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삼았다"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사회체육연구소 학술회

수원캠퍼스 부설 사회체육연구소(소장: 장주호, 체육학과 교수)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체과대 시청각실에서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21세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체육의 역할'이란 대주제(발표자: 이상희 국회의원)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정책방향'의 제1주제 발표(발표자: 성상우 문화체육부 체육정책국장), '국민 건강 생활의 현황'의 제2주제 발표(발표자: 선우섭 체육학과 교수), '21세기를 향한 국민 생활체육의 과제'의 제3주제 발표(박영진 체육학과 교수)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번 발표회에서 조영원 부총장은 내년 7월에 우리대학에서 열리는 'ICHPERSD, 제40차 세계체육학대회' 분과위원장 3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학주보 뉴스서비스

천리안: GO KHU 32
하이텔: GO KHU 10

인터넷:

<http://news.kyunghee.ac.kr>

장학생 선발기준

장학복지과

장학복지과는 97학년도 1학기부터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학생들에 적용되는 각 대학(학과)별 교내·외 장학생 선발기준을 발표, 각 단대에 공지하기로 했다.

장학금 지원 과정 중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감소시키고자 발표된 이번 장학생 선발기준은 교내장학, 교외장학, 기타장학으로 구분되어 확정되었다.

교내장학의 경우 전체적으로 성적 반영율이 높고 교외장학은 그 외 가정형편 등의 기타요소에 의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선발기준은 각 단대에 공지될 예정이며, 내용 중 문의사항은 각 대학 교무실 및 학과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28일 재료과학 심포지움

'재료과학 기술 심포지움'이 재료과학 기술 연구소 주최로 오는 28일 오전10시에 공과대학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 세미나는 1부에서 '의료용 분리막 재료'를 주제로 김성수(화공)교수가, '지르칼로이 피복판의 부식'을 주제로 박광현(원자력)교수가 강연하며, 2부에서는 KIST 선우공현 박사가 '반응성 분산염료의 합성 및 응용'을 주제로, 원자력연구소 이찬복박사가 '핵연료 노내 거동과 산화물 핵연료'를 주제로, 요업기술원 최희석 박사가 '에메랄드 단결정 성장'을 주제로 강연한다. 3부에서는 '파단면의 fracture해석과 응용'이란 주제로 공과대 김임기(기계)교수가, '다축 힘 Sensor개발'이란 주제로 표준연구소 강대일 박사가, 'NT 및 EM인증과 기술개발'이란 주제로 국립품질기술원 홍윤석 과장이 강연할 예정이다.

전국 아동미술 공모전

'96전국 아동미술 공모전' 심사결과 자유주제부문에서 서인수의 2명, 환경주제 부문에서 김홍달의 1명이 대상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당선된 다섯 작품 중 제1부 자유주제에서 대상은 '한전아저씨'를 그린 서인수(충원미술학원)어린이가, '비행장'을 그린 장준호(서산중앙유치원)어린이가 그리고 '청룡과 흑룡'을 그린 유환익(누원초등)어린이가 각각 차지했다.

제2부 환경주제에서는 '깨끗한 물을 주세요'를 그린 김홍달(남부초등)어린이가, '바닷속 청소를 그린 이지훈(원종초등)어린이가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입상작 시상식은 27일 시청각실에서 열리며 26일부터 28일까지 복지회관 경희갤러리에서 작품전시회도 갖을 예정이다.

2차 사법시험 4명 합격

제38회 2차 사법시험에서 우리학교에서는 4명이 합격했다. 지난 16일 5박3명의 합격자 발표에서 조영환(83·법학), 서인경(86·법학), 이주형(86·법학), 김유성(90·법학)씨가 합격했다. 최종 3차 시험은 12월 11~12일에 있을 예정이다.

또한 제40회 행정고등고시에서 이창홍씨(87·법대 행정학)가 일반행정직에서 최종합격했고, 제2회 지방고시 2차시험에서 유득원(86·행정학 충남)씨와 김귀수(90·행정학 충북)씨가 각각 합격했다.

사 고

"잃어버린 이름을 찾습니다"

한 사람이 고개를 오르고 있습니다. "할딱딱딱", 너무나 생생한 표현에 그 고개는 할딱고개라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몇몇하지 못한 이름. 아리랑고개도 아닙니다. 할딱고개도 아닙니다. 이름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창의력이 이름없는 잃어버린 거리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참가자격: 양캠퍼스 재학생, 대학원생, 동문, 교직원 등 경희구성원 모두
2. 응모내용:
 - 체육대학에서 산업대까지의 세칭 할딱고개 연막
 - 산업대에서 자연대까지의 길
3. 응모기간: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4. 출품수: 각 부문 1~2편씩 총 2~4편
5. 접수처: 대학주보사 편집실(서울 961-0095, 수원 280-2056)
6. 당선작 발표: 12월 9일자 대학주보 지면을 통해 발표함
7. 시상내용: 당선작 각 1편 300,000원 우수작 각 1편 100,000원 참가자에게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 증정
8. 참고사항: 모든 입상작은 대학주보사에 귀속됨

천리안 무료 이용권 배부

본사는 우리학교 온라인 통신학교의 활성화와 PC통신 및 인터넷에 관한 학생 및 경희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활용을 증대하고자 '천리안 매직물 무료 이용권' 무상 배포 행사를 갖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주최: 대학주보, 경희대학교·(주)데이콤 공동 정보사회연구소
- 2. 후원: (주)데이콤
- 3. 대상: 전 '경희인'
- 4. 일시: 오늘(25일 월요일)부터 선착순
- 5. 배부장소: 본사편집실 서울 신문방송국건물(교내 0094, 0095)
- 6. 배부사항:
 - 수원 학생회관 1층(교내 2056, 2860)
 - 무료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1인 1매, 총 1천명에 선착순 배부합니다.
 - 교수, 교직원 등은 25일, 26일 양일간 정보사회연구소(교내 2632)에서 전화접수도 받습니다.
 - 천리안 가입 및 무료 ID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온라인 통신학교 지원센터(02-953-0055)로 문의바랍니다.

경희사진 공모전 오늘 마감

대/학/주/보/사

교시 탐

정지관 능가하는 학생회 선거

▼흔히 대학을 이상적인 곳이라고 얘기한다. 학문을 탐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아탑.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불만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 모두를 대학에 걸었다. 하지만 지금 대학은 더 이상 세상에 물들지 않은 진리와 정의의 전당이 아닌 것 같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세태가 어느새 대학에도 스며들고 있다.

▼지난 13일 수원 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 선거에서 방진영 선거운동본부가 투표비밀 공개여부와 휴학생, 제적생 투표권 인정에 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동선관위측은 투표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위임장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부정표 방지를 위해 불가피 했다"고 제적생 투표권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적생은 오차율에 포함되나 휴학생은 동아리 특성상 투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방진영 선거운동본부에 이에 승복하지 않고 선관위측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했다. 하지만 선관위측은 방진영 선거운동본부측의 요구가 합의를 전제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고라며 두차례나 거부했다. 쌍방합의에 의해 정해진 세 번째 약속시간 10분전까지 선관위측이 나타나지 않자 문제는 발생됐다. 불만을 참지 못한 방진영 선거운동본부가 선관위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판단, "학생들에게 이번 동선선거에 대한 불합리성을 알리겠다"며 동선사무실 집기들을 파손시킨 것이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은 물론 후보자간의 합의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던 선관위측에 있다. 선관위측은 선거를 책임지는 위적인 만큼 사전 심의가 부족했던 선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또한 방진영 선거운동본부가 불합리한 선거를 고발하겠다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결국 이번 사건은 양측의 극단적인 입장대립이 낳은 예견된 결과였다.

(오경란 기자)

조영식 학원장 'UN 특별공로상' 수상

최초의 개인상...세계평화 구현 공로

UN창설 51주년을 맞은 지난 달 24일 UN은 우리학교 조영식 학원장에게 'UN 세계평화 특별공로상'을 수여했다.

'세계 평화의 날'과 '세계 평화의 해'를 제언하고 세계 평화

를 위한 '국제 평화 세미나'를 개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이 상은 UN사상 최초의 개인상이다.

1981년 코스타리카 산 호세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대학총회'에서 조 학원장이 발의한 '세계 평화의 날' 제정안은 당시 참석한 6백여명 세계 각 대학 총장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후 UN에 상정되어 같은 해 열렸던 '제36차 UN총회'에서 1백57개국의 만장일치로 매년 9월 셋째주 화요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 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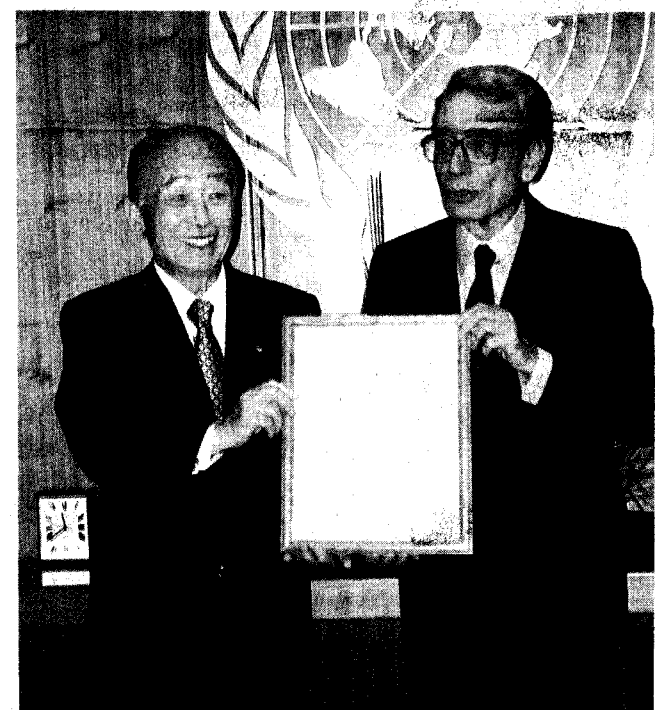
또한 1982년 UN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1986년을 '세계 평화의 해'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정동성 총동창회장 매트 기증

정동성 총동창회장이 지난 20일 제대에 마투메트를 기증했다.

이 날 제대 제조장에서 개최된 기증식은 기증경과 보고, 학장인사, 기증, 감사패 증정 순으로 치뤄졌으며 이어서 경희여중, 경희여고 및 우리학교 제조부의 시범도 선보였다.

또한 이날 같은 장소에서는 정형모 제대 동창회장(진로스포츠 사업단 사장)이 지난 4월 우리학교 농구부에 기증한 후원금 5천만원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다.



▲지난달 24일 UN창설 51주년을 맞아 조영식 학원장이 'UN 세계평화 특별공로상'을 수상하는 모습

“세계의 중심에 서는 경희대학교”

꿈과 이상이 자라고 있는 경희대학교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 초일류대학으로 변신하는 경희대학교를 지켜봐 주십시오.

도약, 1999년.

여러분의 정성과 후원으로 완성됩니다.

등록금 한 번 더 내기 운동

9학기 등록금, 모교발전의 튼튼한 토대입니다.

장학금 되돌려 주기 운동

영원히 변치 않는 교적,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되돌려 줍시다.

경희발전기금, 이렇게 쓰입니다.

대강당 완공

개교50주년기념관 건립기금 조성

경희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1999년 개교50주년기념사업 기금을 위한 범 경희인의 후원운동을 전개합니다.

21세기 특별목적사업기금 조성

- 교육시설 확충(특수교육공간 건설 및 문화공간 확충)
- 학술연구/첨단과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우수교원 및 연구원 확충
- 종합 학술 정보 체계 수립/도서관 장서 구입
- 문화예술/창작/체육진흥기금
- 장학/각종 교시육성 후원기금

경희사랑(저금통) 기금

- 목적: 학교 발전기금조성(애교심 및 저축심 함양)
- 참여대상: 동문,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인
- 저금통배부안내
 - 1인1개 배부원칙, 12월 9일부터 개교5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배부(본관도형모형으로 제작)
 - 동문일 경우 총동문회에서 배부받을 수 있으며, 재학생일 경우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를 직접 방문 받을 수 있습니다.
 - (총동문회: Tel. 744-8855/6, 3672-0616, Fax. 3672-4994)
 - 기타 소속기관장 및 단체장의 요청 공문에 의거 배부합니다.
- 기탁방법
 - 경희사랑 저금통에 저축된 금액을 가까운 서울은행에 무통장 입금후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로 입금자 성명, 입금액을 연락해 주십시오.
 - *입금계좌번호

서울은행: 17308-9505323
예금주: 경희대학교

- ◇계좌번호는 경희사랑 저금통 밑부분에 있습니다.
- 경희사랑 저금통을 가득 채우면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로 직접 방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 세제감면: 출연자(기업체 및 각종재단 포함)가 기탁한 기부금에 대하여 세제감면 혜택
 -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8조의 2(상속재산 기금출연)
 - 소득세법 제66조의 3(기부금 특별공제)
 - 조세감면 규제법 제49조 (법인소득 손금 또는 개인사업소득 손금)

경희대학교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Tel: 961-0931/2 Fax: 961-0906